

태광산업 (003240)

등급	2016	2017	2018
ESG 통합	B	C	C
지배구조	C	C	C
사회	B+	B	B
환경	C	D	C

Recent issue

관련분야

지배구조

부정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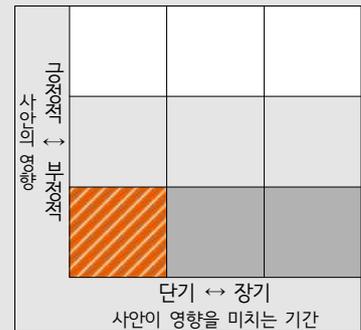
공정위, 태광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제재

- 공정위는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①티시스(舊 휘슬링락CC)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②메르뱅크로부터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이 대규모로 와인을 구매한 행위에 대해,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2억원(태광산업 2.53억원)을 부과하고 동일인 이호진 전 회장과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함
- 위법행위가 발생한 2014~2016년 동안 거래객체인 티시스와 메르뱅크 모두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% 소유했던 회사로,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가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우려가 상당하였다고 지적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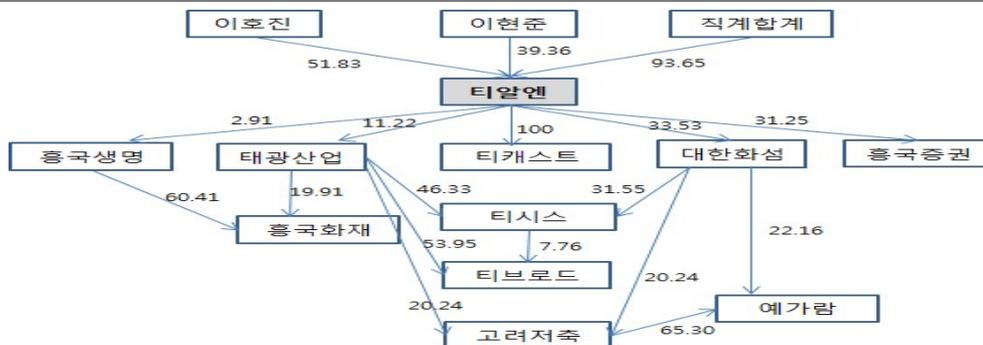
(출처) 기업집단 태광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엄중 제재, 공정거래위원회. 2019.6.17

Comment

- KCGS는 '18년도 지배구조 평가에서 태광산업의 티시스 등 계열사 상대 내부 거래가 **지배주주에 대한 지원성 매입거래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하여 심화평가 감점 항목으로 반영한 바 있음**
- 공정위의 제재를 통해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내부거래가 실제로 지배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데 동원된 사실이 확인됨
-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배주주는 메르뱅크 지분 전부를 태광관광개발에 증여(2017.7)하고, 티시스를 인적분할한 뒤 사업회사를 태광관광개발과 합병(2018.8)함으로써 문제가 된 일감몰아주기 구조를 해소하였음. 따라서 이번 제재 조치에 따른 추가적인 내부거래 개선 효과는 제한적임
- 태광산업의 지배구조 등급은 3연속 C등급을 기록함.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호진 전 회장은 올해 2월 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며, 배당 등 주주환원을 포함하는 주주권리보호 영역과 내부 통제장치의 적절한 운영을 담보해야 할 감사기구 영역에서 특히 저조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
- 상기한 위법행위에 따른 공정위 제재 조치는 '19년도 평가에서 등급조정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



< 태광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도 ('19.6 기준) >



주1 : 舊 티시스가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티알엔(이호진 51.8%, 2세 39.4%)은 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해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 수행

주2 : 태광관광개발은 舊 티시스(사업회사) 합병 후 사명을 티시스로 변경함

자료: 공정거래위원회